

# 顧庵 李應魯 畫伯 生家 活用方案

박철희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강원도에 박수근, 충북에 김기창, 전남에 허백련, 제주도에 이중섭이 있다면 우리고장 충남에는 고암 이응노가 있다.
- 고암 이응노(1904-1989)는 한국적인 기개와 그의 독창성을 화폭에 담아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에 오른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동백림'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77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국내에서 활동이 중단되고, 89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일생동안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치열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 이러한 그의 작품활동은 한국미술을 서양에 알리며 그 자신도 동양적인 예술세계에 성야의 조형의식을 접목시켜 그 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 그러나, 고암 이응노가 태어난 홍북면 중계리의 생가는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변모되어 그 자취를 잃어가고 있어, 한국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김기창, 박수근, 이중섭 등의 생가가 복원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어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 다행스럽게도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암 이응노의 예술세계에 대한 재평가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그의 예술세계 등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홍성군에서는 생가지 복원과 주변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어 본 글에서는 생가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여건을 살펴봄으로서 복원과 구상에 있어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생가지 활용 관련사례 및 현지여건 조사를 통한 활용여건 검토,
- 둘째, 여건분석을 통한 활용 구상,
- 셋째, 이용자 설정을 통한 활용 프로그램,
- 넷째,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방향 및 추진방향 제시하고자 한다.

## II. 생가 활용 관련사례

- 생가지 활용사례는 역사적인 인물에 따라 다양하나 이응노 화백이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대 또는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박수근, 김기창, 이중섭, 허백련 등의 정비사례를 살펴보았다.
- 가장 활발한 활용은 운보 김기창 화백 관련사업으로서 운보문화재단과 더불어, 운보미술관, 운보의집, 운보갤러리 등과 함께 (주)운보와사람들을 설립하여 예술 정신 계승, 문화예술 대중화,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중섭의 생가가 있는 서귀포시는 생가가 서귀포시내에 있는 점을 십분활용하여 이중섭의 거리를 만들고, 생가복원과 이중섭미술관을 조성하고 매년 이중섭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공간화는 물론 관광자원화함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기폭제 요소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 또한, 박수근 생가는 양구군이 추진주체가 되어 미술관, 기념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허백련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함과 동시에 의재미술관을 조성하여 지역문화발전의 메카로 조성하고 있다.
-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 및 지원 하에 생가지의 적극적으로 복원
  - 둘째, 생가지와 함께 기념관, 미술관을 건축하고 주변지역을 공원함으로서 작가 예술정신 계승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 셋째, 작가의 이미지를 지역의 이미지로 구축함으로서 지역의 장소마케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 이었다.

작가명	사업개요		관련사진
박수근	위 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도입시설	미술관, 박수근 나무, 박수근화백기념공원	
	추진주체	양구군	
김기창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428-2	
	도입시설	운보의 집(생가), 운보 미술관, 운보공방, 운보 갤러리, 레스토랑, 아트샵, 야외 수석공원 등	
	프로그램	운보미술사상대회, 여름캠프 및 도자체험교실	
	추진주체	(주)운보와사람들	
이중섭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동	
	도입시설	생가복원, 이중섭미술관(연건평 589㎡, 2층), 이중섭의 거리	
	프로그램	이중섭예술제	
	추진주체	서귀포시	
허백련	위 치	광주시 동구 운림동 85-1	
	도입시설	의재미술관(약 6,000㎡)	
	프로그램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시지정기념물5호)	
	추진주체	의재문화재단 (광주시 및 중앙정부 지원)	

## IV. 이용노 생가지 현황 및 활용여건

### 1. 생가지 현황

- 고암의 생가는 행정구역상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홍성읍에서 당진방면으로 지방도 609번을 따라 차량으로 20분 정도가면 '홍천'이라는 냇물을 건너 '중틀'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 낮은 구릉에 자리한 고암의 생가는 슬레이트지붕에 안채와 나란히 마주보이는 슬레이트 사랑채로 있다. 그러나, 원래의 모습은 초가집 단채로서 현재의 집은 해방 후 개조된 것이라 한다.<sup>1)</sup>

1) 吳隆鎭, 南尙賢, 이용로 탄생100주년 특별기획 - 생가를 찾아서(1), 대전일보, 2004.1..20

### 1) 위치

- 행정구역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 홍성읍→당진 방면으로 지방도 609번을 따라 차량으로 20분 내에 위치

### 2) 주변지역 여건

- 북쪽으로 용봉산, 남쪽으로 백월산 사이에 배산임수형의 공간에 입지
- 진입부 양쪽으로는 현재 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양식을 위한 연못이 조성되어 있음

### 3) 생가지 현황

- 생가지는 단간 초가였으나 슬레이트로 변형되어, 현재는 농기구를 놓아두고 사용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은 벽돌담으로 구획
- 생가는 부엌·방·방·대청·방2이 일렬로 돼 있었다고 전해지며, 주변에는 나뭇가지 다발로 만든 담이 있었다고 함

---

2) 끝방은 손님을 맞이하는 접견실 역할을 했던 듯하다.

## 2. 활용여건

- 자원의 활용여건은 입지, 접근, 이용, 환경적 측면과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입지측면에서 생가지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여 용도지역상으로는 관리지역에 입지하여 물리환경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특히, 지방도를 통하여 생가지까지 50m이내의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 이용측면에서는 홍성 중심시가지에서 10km내 외 20분거리에 위치하여 도심근교의 문화공간으로서도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가지 전면은 논밭, 뒤편에는 수목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근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그 활용성은 충분한 상태이다.

요 소	세부항목	평가 내용			
		A	B	C	D
입지	입지조건	매우 양호	양 호	보 통	불 량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	보호지역
접근	접근도로	200m 이내	200~500m	500~1,000m	1,000m 이상
	교통수단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용	여가시설	20분 이내	40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이상
	母도시거리	10km 이내	10~15km	15~30km	30km 이상
환경	환경상태	매우 양호	양 호	보 통	불 량

- 주변 자원과의 연계측면에서 홍성군에는 우국지사인 김좌진장군의 생가는 물론, 민족시인이며 애국지사인 한용운<sup>3)</sup>, 한국 전통춤의 아버지 한성준<sup>4)</sup>, 조선 판소리의 대가 최선달<sup>5)</sup> 등의 예술가 등의 고향으로서 인물·예술을 주제로한 문화벨트의 구축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조선 고종 16년(1879년) 홍성군 결성면에서 출생한 한용운 선생은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에 참가한 독립운동가, 저항문학으로 대표되는 “님의 침묵”을 남긴 시인,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한 승려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에는 생가복원, 기념관 조성, 전국적 규모의 만해제 개최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남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2003.6)

4) 조선말 홍성에서 태어난 한성준은 17세 때 명고수가 되어 무용의 체계를 세웠으며, 승무(僧舞)·학무(鶴舞)·태평무(太平舞) 등의 여러 무용을 무대화시켰다. 현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정신문화창달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전수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5) 판소리는 대체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숙종·영조)에 이르는 동안 광대들에 의해 구전된 독연형태의 극예술로서 결성(結成) 최선달(崔先達)과 하한담(河漢譚) 등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이두현 ‘한국연극사’, 「한국문화사 대계」 4권, 1965, p.958).

## V. 활용기본방향과 도입프로그램

- 관련사례, 생가지 현황 및 활용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응노 생가지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활동에 따른 잠재적 도입가능시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 1. 기본방향

**첫째, 이응노 화백을 위한 기념공간 및 후세들을 위한 예술체험공간**

- 이응노의 생가가 다른 인물, 충신, 무인과는 다르게 미술가의 집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생가 및 주변은 단순한 기념공간이 아닌 후세 청소년들이 작가의 정신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술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전문아트캠프라는 예술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또한, 지역의 예술공간이 절대부족함을 감안할 때 이응노의 생가는 미술을 중심으로한 전문아트캠프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의 예술교육의 장으로의 충분한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에게는 예술배움의 장, 일반관광객에게는 여가 참여의 장**

- 생가와 주변의 정비는 지역청소년에게 배움의 장으로, 일반방문객에게는 여가 참여의 장으로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도입프로그램

- 이용자 선정과 이용자의 활동에 따른 생가 및 주변지역에 도입가능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선정

- 도입시설과 프로그램의 검토를 위해 이용자를 선정해 보면, 이응노 화백의 예술에 관심을 갖고 보고, 느끼고 싶어하는 청소년,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자 하는 전문예술가, 창작활동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이응노 화백에 관심있는 목적관광객, 다른 휴양·여가문화활동과 이응노 화백에 관심있는 통과관광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동시수용인원<sup>6)</sup>은 최대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다.

---

6) 동시수용인원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사례로 보면 최대 200명을 넘지 않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2) 활동에 따른 도입가능시설

- 이용자별로 활동은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입시설을 검토해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이응노 기념공간, 미적체험, 옥외여가활동, 자연체험 공간 등이 필요
- 전문예술가 대상으로는 기념관, 창작활동, 숙박시설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
- 목적관광객 대상으로는 기념관, 미적 체험시설, 학습공간 등이 요구
- 통과관광객 대상으로는 기념관, 문화예술공간, 옥외여가공간 등이 요구
- 방문자 공통시설로서는 주차장 등이 필요하고 관리를 위해 관리동, 사무소 등이 필요
- 주요활동에 따른 도입가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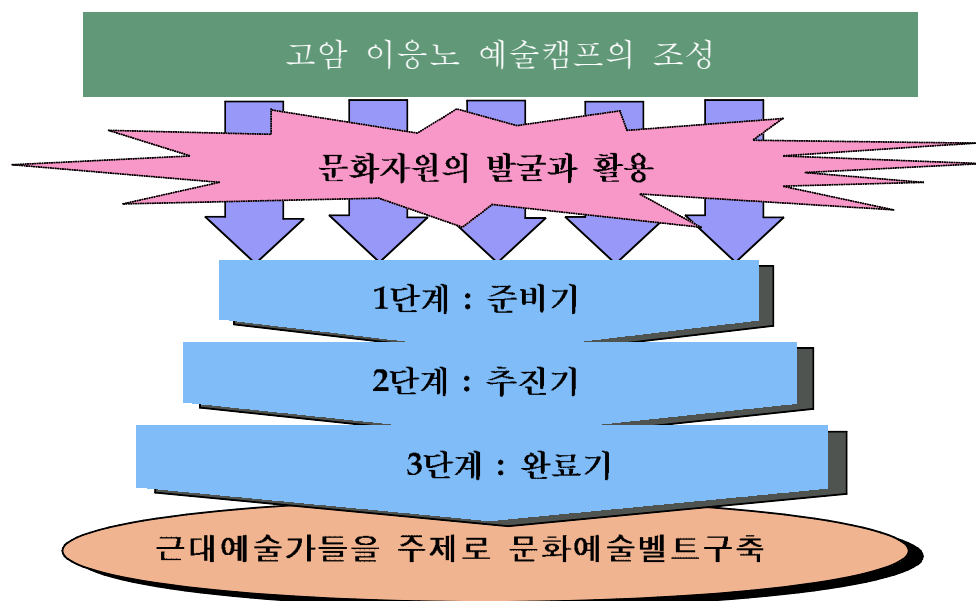
구 분	주요 활동	도입 시설
이응노기념	• 생가, 기념관 방문, 순회	- 생가, 이응노기념관, 기념품판매소, 이응노 미술의 길, 전망대
미적체험	• 미적체험	- 이응노 화백의 길, 야외전시장, 조형물
자연체험	• 자연관찰	- 연못, 숲 사이의 오솔길
창작활동	• 회화와 관련된 창작활동	- 실내실습실, 야외실습실 등
학 습	• 예술교육,세미나, 워크숍	- 강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당
숙 박	• 숙박	- 숙박동, 예술가 전용숙박시설
문화예술활동	• 전시관람 • 행사, 집회	- 야외전시장, 광장 등
옥외여가활동	• 자연감상, 피크닉	- 야외휴게공간,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
관리운영	• 관리, 운영	- 관리동, 사무소, 주차장 등

## VI. 결론

- 고암 이응노 생가는 미술가로서의 생가차원을 넘어 교육 및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그 잠재력은 더욱 크다.
- 그러나, 여러 사건과 세월의 질곡에 의해 우리의 생각에서 잠시 잊혀졌을 뿐이다. 이제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응노 화백의 예술은 재평가되고 있으며 활용여건도 성숙되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화백의 생가지에 대한 조성, 사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생가지 복원 만이 아닌 지역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조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단순한 생가지 복원과 기념관 조성으로는 지역주민 및 방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가 및 주변지역의 관광자원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생가지 복원과 기념관 사업을 전제로 주변지역을 종합정비하고 여가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어메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며, 이를 통하여 내포문화권, 흥성, 인물을 테마로 한 근대예술인 문화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이미지 개선 및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가 및 주변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관의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생가지를 어떤식(기와, 초가)으로 복원한 것인가, 공간구성과 도입시설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공간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과제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만 사업타당성 확보, 도 및 중앙부처지원 확보에도 용이하다.
- ▶ 생가 복원의 위한 체계적인 조사, 계획, 설계가 필요



• 1941년 고향집에 그려져 있는 초가

• 현재 슬레이트로 개량되어 모습

**셋째, 생가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 지정 추진과 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생가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의 원활한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이용노 미술관 등) 및 예산(추사고택 등)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됨을 고려할 때 홍성군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고암 이응노의 생애와 작품



고암 이응노(高庵 李應魯, 1904-1989)는  
1904년 충청남도 홍성군 중계리에서 태어나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문하에서 문인화를 습득하였으며, 192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청죽(淸竹)>으로 입선하면서 미술계에 등단하였다.



청죽 (淸竹)  
(1931 / 한지에 먹 /  
조선미전 제 10회  
서, 사군자부 특선)

고암은 1935년 도일(渡日)하여 일본 남화(南畵) 2대가의 한사람인  
마쓰바야시 게이게쓰(松林桂月)에게 사사받고, 한편으로는  
혼고(本郷) 연구소 등에서 서양화를 연구하는 등 근대적인  
미술교육을 받게 된다.

이 시기에 고암은 전통적인 사군자에서 벗어나 대상을  
사실주의적으로 탐구한 현실풍경화를 그리게 된다.



청암 (靑巖) (1939년대 / 한지에 수묵담채 / 일본 회원 간담회 4회 무감사 특선)

1945년 해방을 맞은 고암은 김영기(金永基), 장우성(張遇聖) 등과 함께 단구미술원(檀丘美術院)을 조직하여 식민잔재를 벗어나 새로운 한국회화를 개척한다는 기치 하에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였다.

6.25 전쟁 발발 후, 그는 전쟁 중에도 작품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피난민>과 같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전후의 화단에서 그는 국전의 폐단을 지적하는 재야적인 미술인으로서 활동했다.

1957년 뉴욕 월드하우스갤러리(Worldhouse Gallery) 주최의 현대한국미술전에 출품은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위한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국경 / 1958년 / 캔버스에 유채 / 125x100cm

1958년 고암은 그의 작품에 주목한 프랑스 평론가 자크 라센느(Jacque Lassaigue)의 초청을 받아 도불(渡佛) 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작품경향은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스스로 언급했듯이 '반추상적 표현이라고도 할 자연사실에 대한 사의적(寫意的) 표현'에 이르고 있었다.

독일에서의 순회전을 마치고 파리에 정착한 고암은 당시 앙포르멜 운동을 주도한 전위적 화랑이었던 파케티 화랑(Galerie Facchetti)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1961년 파케티 화랑의 첫 개인전에서 고암은 종이 꼰라주 기법을 사용한 완전추상 작품을 발표했다.

1964년에는 파리의 동양미술관인 세르누쉬 미술관(Musee Cernuschi) 내에 동양미술학교(Academie de Peinture Orientale)를 세워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동양미술을 가르쳤다. 한편으로 그는 서예가 가지고 있는 조형의 기본을 현대화한 문자추상을 탐구했다.



문자추상 / 1964년 / 캔버스에 수묵담채 / 24x18cm



구경 (1968 / 한자화 184 / 155 x 69 Cm)



새들 (1971 / 한자화 4 폭 합계 / 136 x 69 Cm)

고암은 1967년에 이른바 '동백림' 사건으로 귀국하여 옥고를 치루었으며, 옥중에서도 쉬지않고 작업을 계속하여 많은 옥중화를 남겼다. 이후 고암은 파리로 돌아가서 문자추상을 더욱 발전시켜나갔다.

고암은 1977년에 또 한번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문헌화랑의 <무화(舞畵)>전을 끝으로 1989년 작고 직전까지 국내활동이 중단되었다.



감옥에서 그린 그림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정치적 탄압에 직면한 그에게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은 새로운 화제(畵題)를 제시한다. 고암은 이러한 화제를 '통일무(統一舞)'라는 작품속에 읊겼는데 그것은 군중들이 호소하는 자유의 외침이었다.



고암 이응노 作 <군상> (1986) 한지에 수묵, 29x20cm

1989년 고암은 끝내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일생동안 일제 식민기, 해방과 6.25 전쟁, 민주화 과정의 아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치열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그를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지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자료 : <http://www.ungnolee-museum.com> 참조



1989 / 군상 / 종이에  
수묵 / 96 x 178 cm